

“상품권 줄게 전입해 다오”

광주 동구청 편법 인구늘리기 물의

대학생에 영화 할인카드·건보료 혜택 등 흥보

급감하는 주민수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가 관내 대학생들에게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미끼로 동구 전입을 유도하고 있어 범죄적 인구늘리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 당진군이 시승격을 위해 동구청과 유사한 방법으로 무더기 전입을 받아 전국적 파문을 던진 바 있어 금품제공을 전제로 한 동구청의 인구유입책도 도미위에 오르게 됐다.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서석동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 기숙사 등지에 ‘전입신고 대학생 지원혜택 안내’ 전단지 수천장을 배포해왔다.

전단지에는 “동구가 광주의 종갓집으로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입 대학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입신고시 1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영화관람료를 편당 2천원 할인해 주는 할인카드를 발급해줄 것이다”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대행에서부터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미부과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동구는 전단지를 대학교 기숙사 우편통에 넣기도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나눠주는 책자에 기록되는 “광양에서 살다가 지난해 기숙사

위넣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전입신고 지원 혜택을 알리고 있다.

이번에 ‘위장전입’ 과문이 발생했던 충남 당진군도 시 승격을 위해 관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5만원 상품권을 배포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대학생 1~2학년이 주로 살고 있는 기숙사에 문화상품권 등으로 현혹하는 것은 잘못된 홍보 방법이라 는 지적이 거세다. 대학생들의 경우 상품권을 얻기 위해 전입신청을 하지 만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선대 김모(20·정치외교 2년)씨는 “광양에서 살다가 지난해 기숙사

로 들어왔는데 고가의 문화상품권과 영화 할인권까지 제공해 준다고 해 주민등록이전을 고민 중”이라며 “친구들은 상품권을 받기 위해 옮겼다가 얼마 후 다른 구청 관내로 옮겼다. 나도 기숙사에서 나오게되면 다른 구로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참여자치 21 김상집 대표는 “거주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저 학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품권까지 동원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다”며 “인구수 감소로 인한 동구청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 구역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혈당 조절 이렇게 하세요

광주시 남구보건소가 마련한 당뇨병 환자 건강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3일 낮 남구 봉선2동 놀시랑교회에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남구보건소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나는 인생! 생생건강 교실’을 개설, 오는 6월까지 매주 월·목요일 두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농민 울린 농기계 썩쓸이 절도

고철값 폭등 속 전남 곳곳 기승

고철 값이 폭등하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부품까지 ‘싹쓸이’해 가는 절도가 전남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31일 농촌을 돌며 농기계 부품을 훔친 문모

농촌지역을 돌며 농기계 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광주부부경찰은 또 이날 시설하우스에서 농자재 등을 훔친 농아 임모(44)씨를 절도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김모(45)씨의 시설하우스 자재 보관

창고에 들어가 양수모터와 농자재 등 시가 13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쳐 나오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자재 도난이 자주 발생하자 김씨가 시설하우스 자체창고 앞에 설치한 CCTV에 인상착의가 활영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철 가격이 급등하자 온전한 농기계 부품을 훔쳐 고철로 판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5)씨 등 2명을 특기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문씨 등은 지난달 4일 나주시 최모(46)씨 집 앞에 놓인 농기계 부품을 차량에싣고 달아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농기계 부품 9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 등이

5·18 묘지에

어린이 체험관

사적지 대대적 정비키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을 맞아 광주시가 부상자회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5·18 사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 지하전시관은 오는 8월까지 8억5천만원을 들여 자료관과 영상관, 전시관, 놀이관 등을 갖춘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관으로 개조된다.

광주시는 3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 26곳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4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회원은 물론 시청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대 정문 소공원과 5·18 구묘역에서 정비활동을 펼쳤다.

표지석 위치가 눈에 쉽게 띄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광주역 광장’과 ‘배고픈 다리’, ‘상무대 옛터’ 등은 표지석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또한 참배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표지석 받침과 울타리, 쉼터 등을 설치하고 전남대 정문과 5·18 묘지에는 소공원을 조성 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

꽃가루 주의보

곱향나무 4월 초~중순

소나무 4월 중순~5월말

국립기상연구소는 3일 소나무, 참나무, 곱향나무 등 꽃가루 발생 식물의 꽃가루 발생 빈도에 따른 위험 시기를 분류, 발표했다.

기상연구소는 광주지역의 경우 곱향나무 4월 초~중순, 소나무 4월 중순~5월 말까지, 참나무 4월 중순~5월 중순까지를 꽃가루로 인한 ‘매우 위험 시기’로 분류했다. 또 오리나무는 3월 말~4월 초, 잔디는 6월~8월 말, 환산덩굴은 9월이 꽃가루로 인한 ‘위험 시기’으로 지정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지난 1997~2007년까지 꽃가루 발생 빈도를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전국 주요 지점의 꽃가루 지도를 배포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른한 오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5~21°C
포항	맑음	6~17°C
여수	맑음	8~18°C
원도	구름 조금	5~18°C
구례	맑음	1~22°C
해남	구름 조금	1~19°C
장고	구름 조금	1~19°C
순천	맑음	1~21°C
광진	맑음	3~21°C
전주	구름 조금	4~20°C
남원	구름 조금	1~21°C
화성	맑음	7~15°C

4월 4일

(금 2월 28일)

◇전국날씨



날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6/21	8/19	10/20	8/21	9/15	6/18

시·도교육감, 부동산 교부세 지원 요청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비자 완화 등 건의

시·도교육감들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오후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정기 회를 열고 교과부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확충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 완화를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최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예산의 10% 절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시·도세가 감소됐는데 옛 행정자치부가 시·도세 감

소분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전액을 보전해 주면서 각 시·도의 실질적인 재원은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전입 받는 것이어서 시·도세 총액이 감소한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했으므로 부동산교부세를 시·도세에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요구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등을 활용한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면밀히 여정방학부로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조선대, 총선 출마자에

로스쿨 공개 질의서

조선대학교는 광주·전남지역 4·9 총선 출마자 39명에게 조선대의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3일 발송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직원

노동조합,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은 질의서를 통해 조선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의 부당성과 재추진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질의서에는 ▲조선대 로스쿨 탈락 수용 여부 ▲로스쿨 정원증원 및 추가 인가에 대한 의견 ▲조선대 로스쿨 추가인가를 위한 서명운동 참가 의사 등 6개항의 질문이 들어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오피스텔 분양공고

전남 新도첨 입

실투자금 2000만원대

3.3㎡ 당 300만원대

실투자금 대비 15%대 일대 수익률

● 100평대 150평대 200평대 250평대 300평대 350평대 400평대 450평대 500평대 550평대 600평대 650평대 700평대 750평대 800평대 850평대 900평대 950평대 1000평대 1050평대 1100평대 1150평대 1200평대 1250평대 1300평대 1350평대 1400평대 1450평대 1500평대 1550평대 1600평대 1650평대 1700평대 1750평대 1800평대 1850평대 1900평대 1950평대 2000평대 2050평대 2100평대 2150평대 2200평대 2250평대 2300평대 2350평대 2400평대 2450평대 2500평대 2550평대 2600평대 2650평대 2700평대 2750평대 2800평대 2850평대 2900평대 2950평대 3000평대 3050평대 3100평대 3150평대 3200평대 3250평대 3300평대 3350평대 3400평대 3450평대 3500평대 3550평대 3600평대 3650평대 3700평대 3750평대 3800평대 3850평대 3900평대 3950평대 4000평대 4050평대 4100평대 4150평대 4200평대 4250평대 4300평대 4350평대 4400평대 4450평대 4500평대 4550평대 4600평대 4650평대 4700평대 4750평대 4800평대 4850평대 4900평대 4950평대 5000평대 5050평대 5100평대 5150평대 5200평대 5250평대 5300평대 5350평대 5400평대 5450평대 5500평대 5550평대 5600평대 5650평대 5700평대 5750평대 5800평대 5850평대 5900평대 5950평대 6000평대 6050평대 6100평대 6150평대 6200평대 6250평대 6300평대 6350평대 6400평대 6450평대 6500평대 6550평대 6600평대 6650평대 6700평대 6750평대 6800평대 6850평대 6900평대 6950평대 7000평대 7050평대 7100평대 7150평대 7200평대 7250평대 7300평대 7350평대 7400평대 7450평대 7500평대 7550평대 7600평대 7650평대 7700평